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임직예정자 당회고시 후 면접 / 11월 2일(토) 오후 2시 801호(고시), 607호(면접)

◆ 알림

1. 권사회 주관 교회를 위한 기도회 / 매 주일 오후 1시 101호
2. 서울교회 상담부에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서는 010-2376-3892번으로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상담분야: 법률, 세무, 교육, 가정 / 문자 양식: 교구, 성명, 상담분야)
3. 70인전도대 노방전도(이삭) 27일(주일) 오후 1시 603호
70인전도대 노방전도(권사회) 30일(수) 오후 1시 603호

◆ 장례

1. 故 김복수 성도(7교구 정선경 권사의 시모) / 10월 20일 별세, 10월 22일(화) 발인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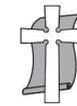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602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6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202호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협동목사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카자흐스탄), 이경엽·송은옥,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위나이(인도), 에디슨 물릭, 라곤 뽀꾸야, 까첸드로 리씨, 도렌드로 디오, 토론 짬부공, 오을 짜꼬마, 폰노야 므롱, 맨톤 므롱(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김명일, 김춘기(군선교)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서울교회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개혁 ”

■ 로마서 1:14-17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역사를 중세에서 근세로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개혁자들의 신앙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 최고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에 어긋난 주장들과 교리들은 철폐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루터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모든 독일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은 당시 발전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의 주장들을 담은 문서들과 성경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생각의 기준점을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논란이 많은 문제를 설명하면서 롬 4:3, 갈 4:30에서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이 판단의 기준임을 역설했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원형의 회복 운동입니다. 개혁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신앙의 유일한 권위와 표준이 성경임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이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함이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 구원에 이르는 진리

루터가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롬 1:16, 17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영혼의 햇살처럼 그를 비추었습니다. 면죄부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됨을 전격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개혁의 주장들이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잠시 뒤에 출발한 개혁자 칼뱅은 엡 2:8, 9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른 구원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 몸부림을 칠수록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통만 심화됩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닌 구세주의 권능과 자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3. 그런즉 우리 삶은

바울은 14, 15절에 이 은혜를 믿고 사는 그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전하고 사는 것이 자기 사명이며 삶의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마지막 구호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들이 구원 얻을 때 나타나고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삶이란 이 역시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 1:25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잘 수행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속의 힘 또는 인간의 힘이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기루 같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천국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과 믿음의 힘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 헌신도 믿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최종국 목사
II 오전 11시	최종국 목사	이강인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사 55:1, 2b		* 신앙고백	다 함 계
기 원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찬 송	9(4절)		환영과 축복	다 함 계
* 신앙고백	다 함 계		* 봉 헌	다 함 계
* 성시 교육	104(중교개혁주일)		* 봉헌, 목회기도	설 교 자
* 송 영	6		찬 양	찬 양 대
기 도	말 은 이		교회 소식	영 상 광 고
찬 송	358		성경 봉독	설 교 자
성경 봉독	롬 1:14-17		설 교	손달익 목사
성도의 교제	다 함 계		결단의 기도와 찬양	찬 양 팀
봉헌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봉헌송	634		* 후 주	찬 양 팀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계			
설 교	"개혁" 손달익 목사			
* 찬 송	585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유태왕	차주연	양경실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백주원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최유현		김양언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영은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김익환 목사	김희석 집사
목 도	다 함 계	
성 시	시 100:4-5	
찬 송	43	
기 도	말 은 이	
찬 송	322	
성 경	갈 5:1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자유의 복음" 모니케어 목사	
특 송	말 은 이	
* 찬 송	268	
* 축 도	손달익 목사	
* 주기도송	다 함 계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박정희 권사
II 오후 7시	김익환 목사	박수옥 권사
성 경	마 4:12-17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 안효주
설 교 손달익, 최종국 목사

금요기도회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홍혜란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